

알지 못하여 죄를 지으면

말씀: 민 15:17-29

요절: 민 15:27

오늘 공부할 본문은 광야의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려야 할 헌물들에 관한 것입니다. 출애굽의 1세대들은 광야에서 이 율법을 지킬 일이 없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거든 지키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는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음식 헌물이나 음료 헌물을 드릴 수 없고 본문에서 말하는 거제 헌물을 드릴 수 없습니다. 15:17-21절은 첫 열매를 주께 가져와 드리는 거제 헌물입니다. 출애굽기 23:19절, “너는 네 땅의 첫 열매의 처음 것을 {주} 네 [하나님]의 집에 가져갈지니라. ...”(출23:19)라고 규정된 말씀대로 열매를 가져와서 주 앞에서 흔들어서 드리는 것이 요제 헌물, 들어 올리는 것이 거제 헌물입니다. 요제와 거제 헌물은 헌물을 드리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짐승을 희생물로 드릴 때 가슴은 요제 헌물로 어깨는 거제 헌물로 구별해서 드립니다(출29:27). 거제 헌물은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취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것이 됩니다. 화평 헌물을 거제 헌물, 빵 반죽의 처음 것에서 드리는 거제 헌물, 십일조로 드리는 거제 헌물 등 거제 헌물은 헌물을 드리는 방법입니다. 15:24-29절은 알지 못하여 지은 죄에 대해 드리는 죄 헌물에 관한 법입니다. 이스라엘의 회중이나 통치자, 제사장, 개인이 알지 못하여 죄를 지으면 ***범법 헌물 드리거나 죄 헌물**을 드려야 합니다. 고의로 짓는 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알지 못하여”**란 말은 죄인줄 알지 못하고, 실수로 짓는 죄를 말합니다. 마땅히 행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행했을 때, 기록한 것들에 대해 죄를 지었을 때, 부지불식간에 죄를 지었을 때, 법에 대해 무지해서 죄를 지었을 때, 알지 못하여 잘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헌물을 드려야 합니다. 이미 헌물을 드리는 자세한 규정은 레위기에서 모두 다루었지만 모세 오경에는 이 내용이 반복적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성도들이 죄를 지으면 그는 주 앞에 헌물을 드렸고 신약에서 성도들이 죄를 지으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됩니다. 크리스천들에게는 죄로 인한 헌물이 더 이상 없습니다. **“이제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서는 다시는 죄로 인한 헌물이 없느니라.”**(히10:18).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물로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요일2:2).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요일4:10).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범법 헌물이나 죄 헌물이 필요치 않습니다. 레위 제사장이나 성전, 제단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생물, 헌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17).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말씀이 반복되는데 이는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중보자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의 중보자요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

도를 예표합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모세는 훗날 주께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일으켜 세우실 것을 말했습니다. 신명기 18:15,18절입니다. “{주} 네 [하나님]께서 네 한가운데서 곧 네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니라.”(신18:15). 모세가 나와 같은 대언자라고 한 것은 주께서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듯 마지막 날들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실 것이요, 백성들은 그분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들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그가 그들에게 말하리라.”(신18:18). 주께서 모세에게 주의 말씀을 두시고, 그에게 명령할 모든 것들을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주 예수님에게 모든 말씀을 두시고, 그분을 통해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대언자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고,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듣고 믿어야 말씀과 행해야 할 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절,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히 1:2). 구약에서 모세의 율법이라 불리듯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불리는 것은 주께서 그분을 통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수많은 대언자들이 있어도 모세와 같은 대언자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34:10절, “그 뒤로는 이스라엘에서 모세와 같은 대언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나니 그는 {주}께서 얼굴을 마주 대하여 아시던 자더라.”(신34:10). 엘리야,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같은 위대한 대언자들도 모세와 같은 대언자가 아닙니다. 모세와 같은 대언자는 주 예수님입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습니다.

1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내가 데려가는 땅에 너희가 들어가거든”(18).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입니다. 왕국 복음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 인류에게 주신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부활 후 주께서는 그들에게 세상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행 1:8). 마태복음 10:18절, “또 너희가 나로 인하여 총독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언하리라.”(마 10:18). 주 예수님은 할례자들의 사역자이셨지만 그분은 온 세상의 빛이요, 이방인들에게 판단의 공의를 보이셨습니다. “내가 택한 나의 종, 내 혼이 매우 기뻐하는 자 곧 나의 사랑하는 자를 보라.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두리니 그가 이방인들에게 판단의 공의를 보이리라.”(마 12:18).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그것을 버리고 영존한 생명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판단했기에 이방인들에게로 돌아섰습니다(행 13:46). 주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행 14:27).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복음을 전하리라 결단했고 거기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지만 그는 이방인의 교사요 사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이방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떠나라. 내가 너를 여기에서 멀리 이방인들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행 22:21). 그가 유대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사역하려 한 것은 성령을 거슬러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말씀하신 율법은 이방인들, 크리스천들에게 적용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들 중에는 율법으로 회귀하려는 움직임 보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에게 음식 규례나 안식일, 절기 준수 등을 지키도록 하려고 하지만 이는 명백한 오류와 오해입니다. 사도행전 15:24절을 보십시오. “우리에게서 나간 어떤 자들이 말들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너희 혼을 뒤엎으며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하였다는 말을 우리가 들었으나 우리는 그들에게 그런 명령을 준 적이 없으

로”(행15:24). 야고보는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지금까지 율법에 대해 열심이지만 이방인들에 관해서는 모세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믿는 이방인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편지를 써서 결론을 내리되 그들이 그러한 것을 지킬 필요가 없고 다만 우상들에게 바친 것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하라고 하였느니라, 하니”(행21:25). 우리는 언제나 율법주의가 교회 내에, 성도들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데려가는 땅에 너희가 들어가거든”(18). 주께서 주신 율법이 언제나 발효되느냐를 밝히고 있습니다. 대부분 법치 국가에서는 선포 즉시 발효되는 법이 있고, 얼마의 유예 기간을 두고 발효되는 법이 있습니다. 시내 산에서 받은 주의 율법 중 희생 헌물에 관한 것, 절기 준수, 십일조, 성전에 모이는 것 등은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발효되는 법입니다. 이 법은 가나안 땅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죽기 때문에 이 법을 받기만 했을 뿐 실제로 지킬 일은 없습니다. 이 법을 듣고 지켜야 할 사람들은 20세 이하의 계수되지 않는 아이들로 출애굽 2세대입니다.

19절입니다. “그 땅의 빵을 먹을 때에 {주}께 거제 헌물을 드릴지니라”(19). 광야에서 먹던 만나가 그치고 가나안 땅에서 나는 빵을 먹을 때 그들은 주께 헌물을 드려야 합니다. 땅의 첫 열매의 처음 것을 가지고 주 하나님의 집에 가야 합니다. 성경에서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이 이어지고 안식후 첫날이 초실절입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첫 열매의 수확물의 열매를 드리고 장막절에도 땅의 첫 열매를 주께 드립니다. “너는 칠칠절 곧 밀 수확의 첫 열매 명절을 지키고 한 해가 끝날 때에 수장절을 지킬지니라.”(출34:22). 칠칠절이 신약의 오순절입니다. 수장절이 장막절입니다. 땅의 첫 열매의 처음 것을 가지고 주의 집에 가져가 헌물을 드릴 때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음식 헌물에 관한 규례는 레위기 2장에 상세하게 나옵니다. 곡식단이 아니라 빵을 먹을 때 빵을 거제 헌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거제 헌물은 주 앞에서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너희 빵 반죽의 처음 것으로 만든 납작한 빵을 거제 헌물로 드리되 너희가 타작마당의 거제 헌물을 들어 올리는 것 같이 그것을 들어 올릴지니라.”(20). 첫 수확물을 빵아서 납작한 빵을 만들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헌물을 드립니다. 주님은 이 빵을 거제 헌물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빵을 거제 헌물로 드리는 것은 타작마당의 거제 헌물을 들어 올리는 것 같이 그것을 들어 올리면 됩니다. 타작마당의 거제 헌물은 곡식 한 단씩을 제사장에게 가져오면 제사장은 그것을 들어 올렸는데 이것을 타작마당의 거제 헌물이라고 합니다. 거제 헌물은 우리 주 예수님이 높이 들리신 것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첫 열매요,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롬8:23, 11:16.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고전15:20). *고전15:23. 성도들은 그분의 창조물 중의 첫 열매가 종류가 되게 하십니다(약1:18). 이렇게 거제 헌물로 드려진 것은 제사장의 것이 됩니다(민18:30). 이 말은 우리가 주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빵 반죽의 처음 것에서 너희 대대로 {주}께 거제 헌물을 드릴지니라.”(21). 주께 드릴 거제 헌물은 빵 반죽의 처음 것에서 드리고, 가장 좋은 것을 취해 들어 올립니다(민18:32). 제사장은 제단 앞에서 헌물을 양손으로 짝 붙들고 그것을 위로 올렸다가 다시 아래로 내립니다. 빵 반죽을 위로 올리는 일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며, 내려놓는 것은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십니다. 기도는 경배든 섬김이든 찬양이든 무엇이든 주께 드리면 주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보상을 주십니다. 믿음에도 보상이 있고, 섬김에도 보상이 있고,

고난에도 보상이 있고, 기도에는 응답이 있습니다. “...너희 대대로 주께 거제 헌물을 드릴지니라.”(21).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나는 음식을 먹는 동안에는 주께 거제 헌물을 드려야 합니다.

22절입니다. “너희가 잘못하여 {주}가 모세에게 말한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22).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의 법을 지키지 못할 때 그의 관한 속죄 규례입니다. “너희가 잘못하여...”란 말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무지로 또는 불신으로 인해 잘못하는 경우입니다. 고의적으로 잘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첫 열매의 곡식단을 주께 드려야 하는데 여행을 떠난 경우,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이 명령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등 다양한 예가 있습니다. 사람이 늘 잘 행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께서 광야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십 년 동안 이 세대로 인해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마음속으로 잘못하는 백성이요, 그들이 내 길들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였노라.”(시95:10). 광야의 회중들이 마음속으로 잘못하는 백성이라면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거의 같습니다.

그럼 이들은 왜 잘못하는 것입니까?

- ① 사람이 주의 법규들을 떠나면 잘못하게 됩니다. “주의 법규들을 떠나 잘못하는 모든 자들을 주께서 밟으셨사오니 그들의 속이는 것은 거짓이니이다.”(시119:118). 성도들이 잘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주의 법규, 그분의 증언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떠난 교회, 크리스천들은 잘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 ② 사람이 마음에 악을 피하면 잘못하게 됩니다. “악을 피하는 자들은 잘못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선을 피하는 자들에게는 공홀과 진리가 있으리이다.”(잠14:22). 마음의 생각과 상상에 악을 피하는 자들은 잘못하게 됩니다.
- ③ 지식의 말씀들에서 벗어나 잘못하게 하는 훈계를 들음으로 잘못하게 됩니다. “내 아들이, 지식의 말씀들에서 벗어나 잘못하게 하는 훈계 듣기를 그칠지이다.”(잠19:27).
- ④ 잘못된 지도자, 안내자, 목자의 인도를 받으면 잘못하게 됩니다.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들로 하여금 잘못하게 하므로 그들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였도다.”(사9:16).
- ⑤ 포도주나 독주로 인하여 잘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잘못하며 독주로 인하여 길에서 벗어났도다. 제사장과 대언자도 독주로 인하여 잘못하고 포도주에 잠기며 독주로 인하여 길에서 벗어났도다. 그들이 환상에서 잘못을 범하며 재판에서 걸려 넘어지나니”(사28:7). 술을 즐기는 사람들 중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술에 취하면 말이 잘못 나오고 행동이 잘못됩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범죄들이 술과 더불어 일어납니다.
- ⑥ 성경도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할 때 잘못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 기록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하므로 잘못하느니라.”(마22:29).
- ⑦ 돈을 사랑하고 탐내면 잘못하게 됩니다.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찢어 꿰뚫었도다.”(딤후6:10).
- ⑧ 속되고 헛된 말장난과 거짓으로 과학이라 불리는 것의 반론들을 피하지 않으면 잘못하게 됩니다. “오 디모데야, 속되고 헛된 말장난과 또 거짓으로 과학이라 불리는 것의 반론들을 피하며 네게 맡긴 것들을 지키라. 그것을 내세우던 어떤 자들이 믿음에 관하여는 잘못하였느니라....”(딤후6:20,21a).

주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이 해야 할 일들과 더불어 주 앞에서 해야 할 의무를 행하지 못할 때 그에 대한 속죄 방법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율법을 모두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무지, 태만, 불신 등에 대해서도 잘 아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구조를 아시며 우리가 먼지임을 기억하시는도다.”(시103:14). 구약에서는 알지 못해 죄를 지으면 죄헌물, 범법 헌물을 드려야 하지만 신약의 속죄 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죄를 자백하면 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요일1:9). 죄를 시인하면 공휼을 입습니다. 죄를 회개하면 의롭게 됩니다(눅18:14).

23절입니다. “곧 {주}가 모세의 손으로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주}가 모세에게 명령한 날부터 그 이후로 너희 대대로 지키지 못하고”(23). 주가 모세의 손으로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은 율법 전체를 말합니다. “주가 모세에게 명령한 날부터 그 이후로 너희 대대로 지키지 못하고”(23).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주어진 이후로부터 이들에게는 죄가 발생합니다. 법이 없으면 죄도 없습니다. 율법은 죄의 권능입니다. 주께서는 그들이 모세로부터 받은 주의 법을 그들 대대로 지키지 못할 것이란 사실을 암시하고 계십니다. 법을 지켜야 하지만 율법은 사람을 정죄할 뿐 의롭게 하지 않습니다. 주의 율법을 모두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대대로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죄가 없는 분, 죄를 짓지 않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 없습니다. “주가 모세에게 명령한 날부터 그 이후로 대대로 지키지 못하고”란 말은 인간의 연약함과 율법의 한계, 무익함을 보여 주는 말씀입니다.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지만 그 율법으로 의롭게 될 육체는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율법 밖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또한 다 율법 밖에서 멸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다 율법으로 심판을 받으리니”(롬2:12). 그러나 놀라운 것은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느니라.”(롬3:21).

24절입니다. “회중이 알지 못한 가운데 알지 못하여 조금이라도 죄를 지었거든 온 회중은 어린 수소 한 마리를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번제 헌물로 드리고 관례에 따라 그것의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을 드리며 또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죄 헌물로 드릴지니라.”(24). 이스라엘 개개인의 죄가 아니라 회중의 죄입니다. 회중이 알지 못하고 죄를 지었을 때 어린 수소 한 마리를 주께 향기로운 냄새의 번제 헌물로 드리고,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죄 헌물로 드립니다. 수소는 번제용이고, 염소 새끼는 속죄용입니다. 이 부분은 레위기 4:13-21절에 명시된 규례대로 드리면 됩니다. 레위기에는 수소에 관한 규정만 언급되어 있는데 민수기에는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수소를 번제 헌물로 드리고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을 함께 드립니다. 수소 한 마리를 드릴 때는 고운 가루 3/10 에바, 기름 1/2힌과 음료 헌물로 포도즙 1/2힌을 드리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용서받으리니 이는 그 일이 알지 못한 일이기 때문이라. 또 그들은 자기들이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헌물 곧 불로 예비하여 {주}께 드리는 희생물과 죄 헌물을 {주} 앞에 가져올지니라.”(25). 회중이 잘못해서 죄를 지었을 때 제사장이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용서를 받습니다. 제사장의 속죄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한 속죄를 예표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물로 드리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속죄 헌물이 되셨습니다. “이는 그 일이 알지 못한 일이기 때문이라.”(25). 예수님을 알지 못해 그분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이 용서 받을 수 있는 근거입니다.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인 것은 그들이 그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그들이 그분

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을 알고도 고의로 믿지 않으면 그 죄에 대해서는 희생물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다시는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 남아 있지 아니하고”(히10:26). 예수님을 알고도 믿지 않는다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합니다(히6:6).

다시 25절입니다. “또 그들은 자기들이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헌물 곧 불로 예비하여 주께 드리는 희생물과 죄 헌물을 주 앞에 가져올지니라”(25). 율법 아래서 백성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희생물과 헌물을 주 앞에 가져와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드리는 희생물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합니다(히10:11). 주 예수님은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양이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사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히9:26).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셨습니다(요일3:5).

26절입니다. “온 백성이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가운데 머무는 타국인이 용서받으리라.”(26). “온 백성이 알지 못하였으므로... 용서받으리라.”(26). 알지 못하고 지은 죄에 대해 헌물을 드리면 용서 받는다는 말입니다. 주께서 온 회중과 그들 가운데 머무는 타국인이 용서 받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우리 주께서 십자가 위에서 한 기도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눅23:34). 하나님의 용서와 죄 사함은 모두에게 미칩니다. 제사장의 증보로 이스라엘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용서받았듯이,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용서받습니다. 많은 이들이 유대교는 배타적이다, 폐쇄적이다, 편협하다 등등의 비난을 하지만 주께서는 민족, 인종, 성별, 언어 등 외모의 차별을 두지 않으십니다. 온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요, 사람들의 빛입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믿기만 하면 죄의 사면과 구원을 받습니다.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누구든지, 모든”이란 말이 얼마나 자주 반복되는지 보십시오. 성경의 이 말은 은혜의 보편성, 구원의 보편성을 잘 보여 줍니다.

27절입니다. “만일 어떤 혼이 알지 못하여 죄를 지으면 그는 일 년 된 암염소를 죄 헌물로 가져올 것이요,”(27).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아니라 백성들 개개인이 알지 못하여 죄를 지었을 경우입니다. 그는 일 년 된 암염소를 죄 헌물로 가져와야 합니다. 이 부분 역시 레위기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알지 못하고 죄를 지으면 일 년 된 암염소를 드리고,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도 드릴 수 없을 정도의 사정이라면 고운 가루로 드릴 수 있습니다(레5:7-13). 하나님은 누구든지 돈이 없어서 헌물을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다양하게 드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28절입니다. “그가 {주} 앞에서 알지 못하여 죄를 지을 때에 제사장은 알지 못하여 죄를 짓는 그 혼을 위해 속죄하되 곧 그를 위해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용서받으리라.”(28). 백성들이 주 앞에서 알지 못하여 죄를 지을 때에 제사장은 알지 못하여 죄를 짓는 그 혼을 위해 속죄합니다. 주께서 제사장에게 “알지 못하여 죄를 짓는 그 혼을 위해 속죄하되 그를 위해 속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주신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율법은 레위 제사장 체계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따른 제사장, 육신의 혈통에 따른 제사장보다 훨씬 더 뛰어난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무궁한 권능에 따라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아론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제사장은...죄를 짓는 그 혼을 위해 속죄하라. 그리하면 그가 용서받으리라.”(28). 마찬가지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는 그 혼을 위해 속죄하면 그가 용서 받습니다. 주께서 “네 죄들을 용서받으라.”(막2:5)고 하시면 그는 용서받습니다. 주께서는 어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사람아, 네 죄들을 용서받았느니라, 하시니라.”(눅5:20). 우리는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습니다(엡1:7, 골 1:14).

29절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태어난 자든지 혹은 그들 가운데 머무는 타국인이든지 알지 못하여 죄를 짓는 자에 관하여 한 법을 적용할지니라.”(29). 죄의 용서에는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가운데 머무는 타국인이나 같습니다. 알지 못하여 죄를 짓는 자에 관해 주님은 한 법을 적용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법 앞에 평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은 누구나 동일하게, 동등하게 대하라고 하십니다. 물론 구약에서는 이 법은 이스라엘이 사는 약속의 땅 안에서만 적용됩니다.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명령은 유대인들이나 크리스천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과 그들 가운데 거하는 타국인에게 같은 법을 적용하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49절, “집에서 태어난 자에게나 너희 가운데 머무는 타국인에게나 한 법을 적용할지니라, 하셨으므로”(출12:49). 알지 못하여 죄를 짓는 자에 대해서 죄 헌물을 드릴 때 같은 법대로 헌물을 드리고 제사장들은 같은 방식으로 그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이스라엘 안에 사는 타국인들은 유대인들과 전혀 차별받지 않도록 법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차별이 없다는 위대한 진리를 확증해 줍니다.

알지 못하여 죄를 지었다면, 또는 알면서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죄를 지었다면 우리는 그 죄를 해결 받아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골1:14).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죄들을 자백하면 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요일1:9). 죄를 짓는 일이 반복된다고 해서 절망하지 말고 자백하고 회개하면 됩니다. 성도들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가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쓰러지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자신의 손으로 그를 떠받치시는도다.”(시37:24).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사악한 자는 넘어져서 해악에 빠지리라.”(잠24:16).